

<https://doi.org/10.22643/JRMP.2018.4.1.1>

## Impact factor and journals

Jae Min Jeong<sup>1,2,3\*</sup>

<sup>1</sup>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Institute of Radiatio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sup>2</sup>Cancer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sup>3</sup>Department of Radiation Applie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Impact Factor (IF)는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ISI)을 설립한 Eugene Garfield가 1975년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였다. 그 개념은 최신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이 얼마나 자주 학술지에 인용이 되는지를 계산하여 특정 학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표로 삼는 것이다. 이때 모든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톱슨 로이터사에서 특허를 가진 Journal Citation Reports (JCR)에 실리는 논문들만 대상으로 한다. JCR은 처음에는 Science Citation Index (SCI)로 출판이 되었는데 현재는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와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로 출판한다. JCR에 실리는 학술지는 SCIE 출판에 실리는 학술지이고 따라서 보통 SCI 저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SCI 저널이 되지 않는 학술지는 아무리 실어서 인용되어 봐야 IF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IF는 최근 2년간 특정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이 인용된 총수를 그 학술지에 최근 2년간 출판된 총수로 나눈 값이 된다. 간단한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 학술대회의 초록이 인용되기도 하고, 또 흥미영상이나 뉴스 같은 아주 간단한 논문

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모두 인용된 회수에 들어간다. 그러나 학술대회 초록은 논문 출판 수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IF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들어갈 수 있지만 흥미 영상 같은 경우는 논문 출판 수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안 들어가는 수도 있어 IF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므로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이렇게 IF가 학술지 평가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부작용도 있는데 이는 주로 특정 논문의 내용이 아주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IF가 낮은 학술지에 실리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특히 JRMP 처럼 SCI 저널이 되지 못한 학술지는 학자들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려 하므로 논문 숫자가 부족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리하여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학문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 새로운 학술지가 나타나 국제적으로 커지는 매우 힘들어, 학술지 발간과 같은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 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후발국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선진국이 교묘한 장벽을 쳐 놓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학술지 발간 사업 및 학부 발전을 위하여는 대학교나 연구비 지급 기관에서 너무 IF가 높은 학

Received: June 25, 2018

**Corresponding Author** : Jae Min Jeong, Ph.D.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ngno Jongno-gu, Seoul 110-744 Korea

Tel: +82-2-2072-3805, Fax: +82-2-745-76, E-mail: [jmjng@snu.ac.kr](mailto:jmjng@snu.ac.kr)

Copyright©2018 The 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

술지나 SCI 저널 논문만을 인정하는 풍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심하게 IF와 SCI 논문을 따지는 경향이 있어 자체 학술지 발간 사업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JRMP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의 학술지 인정 사업인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사업에 지원을 하여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되면 학회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므로 JRMP뿐만 아니라 학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논문 제출이 필수적이다.

## References

1. Eugene Garfield. The Impact Factor and its proper application  
*Der Unfallchirurg* 1998;101: 413-414.